

자기가 부처라는 걸 믿고 딱! 뇌 버리세요

25면에서 계속

이 마음 도리를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저를 퍼하기만 합니다

☞ 저는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어머니로서 관심을 갖는다는 게 너무 심한 간섭을 하게 되나 봅니다. 때로 뜻대로 안되면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욕박지르게 되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를 보고 피하기만 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 사실 어려운 가정에서 고통이 많을 줄 압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뛰쳐나간단거나, 속을 썩인다든가 공부를 못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에이, 오늘 자식이,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해야지, 너는 쪽박을 차려고 그러느냐. 뒤를 해서 벌어들여야 하느냐." 하고 욕을 해내고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웬 줄 아십니까? 부부기간도 그렇죠. 네 탓 내 탓 하면서 그냥 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갈 뿐만 아니라 그해 해결이 나질 않아요. 화목할 수가 없게 되죠. 나중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보기 싫어지니까.

자식도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것이 전기로 치면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부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디다. 그러나 주인공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마음과 육체가 더불어 같이 쉼 없이 잘나갈나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나 주인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육신과 마음이 합일입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 그럼 애들과 어떤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많죠? 뒷사람 섬기고 아랫사람 이끌어 가기가 힘들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시대에는 아마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공부가 그런 데도 쓰이는 거죠. 그런 데뿐만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좀 발전시킬 해라. 실천하고 체험을 해 바라 이런 거죠.

☞ 그래서 내 주인공에다가 스위치를 누른다면, 즉 인력을 한다면 자식의 마음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자식에게까지도, 가설이 돼 있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고상한 거지 겁테기인 육체가 그냥 허수아비 모양으로 뛰어 달아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차츰차츰 나가는 일이 없어지는데 "엄마, 내가 왜 그렇게 엄마 속을 썩었지?"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디다.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지금 모두 광개파 생겼다고

야단법석들을 하고, 뭐 두들겨맞고 피를 흘리고 이러니 학교 못 보내겠다고 야단들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관하는 것만 가르쳐 줬더라면 모든 거를 대치를 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 겁니다.

☞ 지금 우리 인생살이가 살얼음판을 밟고 가는 형국인데 이 모든 것을 거기가다 일력하듯이 맡겨 놓는다면 마음도 편안할 것을, 속에서 불화가 치민다고 내던지고 악을 쓰고 부야를 자기가 돌우니까, 살얼음판을 밟고 가다가 거기가다 모다 불을 놓는 셈이거든요, 빨리 빠지게. 그리고 또 불화가 나서 팽개치고 내던지고 그러다 보면, 이걸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냥 한 대 쥐어박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냥 죽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냐 하면 그 불견에 살얼음이 그냥 깨져요. 깨져서 그냥 물에 퐁퐁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날 살리라고 허덕이면서 어떻게든 비대발끝을 해서 나오게 되면 한번 빠졌던 그 문제들로 인해 얼마나 진퇴양난에 처하는지 모르죠. 그래 가지고 자기 몸 병들죠, 재산 없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이 되니까, 내가 그 물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물질이 될 수 있어서 그 물질의 독을 다 제거하니까.

☞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습디다. 마음이라는 것은 무한량입니다. 마음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마음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천차만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또는 보이지 않는 데를 내가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이렇게 굴릴 수 없고 이런다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이 공부 하는 데서 다 표출해 냅니다.

☞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병고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자기 자체가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이겁니다. 우연히도 없고 누가 행복한 걸 빼앗아가는 것도 없고 누가 빼앗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해서 자기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 차원을 높이면 높이는 대로 그 차원으로 이끌어서 내가 동등해지니까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차원이 낮으니까,

확일 수도 있고, 심성천체물리학일 수도 있고 심성철학일 수도 있고, 이 심성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성세계 즉,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합류화해서 자신이 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 저는 제가 생각해 봐도 참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친구를 한테 만날 언어막기만 했지 제가 뭔가를 주거나 베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 제 모습이 조금씩 보이네요. 스님, 저도 이제 받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스님께 서도 그렇게 하겠듯이 말입니다.

☞ 나도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웬 줄 아세요? 힘든 모습을 보면 나도 슬프고 찢어지는 듯 아프니까. 왜? 풀이 아닌 까닭이죠. 부처님께서 그 인생을, 수없이 진화해서 형성되는 그 돌아가는 수레를 다 빼 한 무더기로 얘기를 하겠

고 싶잖아요. 남의 밥을 얻어먹는다면 어떤 게 밥 한 숟가락 남을 줄 수 있겠어요? 내 밥이라야 맘대로 퍼 주지, 내가 못 먹더라도 퍼 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 그러니까 길에 가다가도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 보면 한생각 내주고 돈을 주더라도 그냥 즐뿐이지, 뒷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걸 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지, 이런 생각도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줬다고 하겠습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들어안는데 말입니다. 내가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집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 저의 집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주인공에 맡겨도 진전이 없는데다 주변에서는 코타라도 해 보라고 권하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 내가 판 사람 같으면, 뭘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하겠지만 난 그러고 싶질 않아요. 좀 편하게 살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몰아서 그냥 저 용광로에다 집어넣듯이 진자투고 주인공에다 그냥 탁 놔 버려요, 타 버리게.

☞ 그렇게 하시고 '주인공 당신만이 이걸 지도해 주고 이끌어 주실 수 있고 낮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가다 자꾸 관하세요. 맥의 마음이 진정코 진실하다면 그건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방황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몸에서 생길 수도 있고 타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해 영계성에서 생길 수도 있고 유전성에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를 다 없애려면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동공 줘서 몽땅 놓아주세요. 그것은 이 공부 유년 하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누구든지 하지는 못해요. 그런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전부 해결해야 하나요 그러나 그냥 몽땅 놓으면 그해 다 해결이 난다는 걸 믿고 다 그냥 놔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뭘 차려 놓고 두들기고 그런다고 낫는 게 아니예요. 아주 과감히 그냥 거기가 놓으세요. 본인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본인이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제삼자가 해주세요. 저 사람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연이 있으니까 꺼리거리 만난 거지.' 하고 그냥 거기까지 관해 주시면 제삼자까지 불이 들어와서 마음이 밝아진다는 얘기도. 그렇게 하고 계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가 고장이 나도 운전수가 고쳐야 하고 더러워도 닦아야 하고 어디 부속이 빠져도 끼야 하고 들어서 못쓰게 되면 폐차를 시켜야 하고 이런 것이지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데 생각에 의해서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같이 공생으로 산다는 얘 겁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불을 켜고 진실하게 주인공을 믿음으로써 일체 제불, 일체 보살이 다 한 찰나에 들고 나십니다

☞ 인생살이가 그렇습디다. 흔히들 육신은 배로 비유를 하고 여러번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 배에 타고 가는 중생들로. 그리고 그 주치의 중심은 바로 선장으로 비유하고요, 주인공은. 그런데 그 중생들이 만약에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하고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면 그 배는 뒤집히고 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저 내 마음의 선장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는 데까지 가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광선을 극복하려면...

☞ 요즘 세상에는 인공위성이나 컴퓨터에서 광선 같은 게 나오는데 그 광선이 인간한테 광장히 해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선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인간들한테 해롭게 만드는 광선도 있는데 그런 광선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는지요?

☞ 그것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예를 들어 강도가 있는데 내가 강도가 돼 준다면 강도가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자기 손가락 하나가 제 손가락을 자를 수가 없죠. 그렇듯이 어떠한 게 나를 파괴하려 온다고 하더라도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거하고 나하고 대 볼 때 아주 차원이 낮으니까 거기에 대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은 무사히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 우리는 지금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 지금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그렇게 상세계가 있고 중세계가 있고 하세계가 있고 천당 지옥이 있고,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생각을 해서 우리가 우주를 빛보다 더 빨리 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그것은 목마를 때에 내가 목마르면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르면 먹을 수 있어야 도나.

☞ 그랬던 거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필요한 걸 가질 수도 없고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차원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태양이 팽창되게 될 때 내가 태양이 된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며, 또는 축소될 때 내가 태양이 된다면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의 공부, 천차만별의 마음의 공부 즉, 심성의확일 수도 있고 심성과

습니까?

☞ 그러나 멀리 봐도, 가깝게 봐도 삼천 년 전도 현실인데 현실에 다 내 부모였고 내 자식이었고 내 형제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남으로 보겠습니까? 깨치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아주 좋게 금을 감고 호위호식을 하고 사는 게 아니예요. 그렇지만 즐거움 건 사실이지. 왜냐? 예를 들어서 막상 가난한 사람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잔다 이럴 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병원에서 버림을 받았 다 이럴 때, 그게 상황대로지 어떻게 골라가면서 합니까. 상황대로지. 그렇게 주고 나면 그렇게 싱그럽고 좋을 수가 없어요. 주는 것밖에 좋은 거 없 습니다.

☞ 세상에 남의 걸 달래서 먹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항상 얻어먹어야 되고 남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항상 주면서 살게 됩니다. 그 한생각이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도 실천을 해 보세요. 주면서 살아야겠다 한다면 주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얻어서 꼭 살아야지, 얻을 데도 많은데.' 이러면 꼭 얻어서 살게 되죠. 부처님의 밥도 말입니다. 저 부처님의 공양 밥도 그것을 얻어먹는 걸로 먹어선 안 됩니다. 내 밥 내가 먹을 줄을 알아야지요. 그래야 내가 자유스럽게 남도 퍼 주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서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함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게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지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율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함장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사찰화재보험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장·향 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신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포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상위험 실사(실측) 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함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회재빌딩 1704-1호 전화 : 010-7344-1881